은혜와 진리 소식

2025년 4월 20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제1926호 1982년 8월 8일 창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사랑하는 친정어머니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에 가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이 미 옥 -

저의 친정은 집안 어른들이 무속신앙으로 똘똘 뭉친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3남 1녀 중 맏이로 태어나서 자랐는데, 특히 직업군인인 아버지가 성격이 매우 엄하셔서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회에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일 때 동네에 있는 교회의 전도사님이 열심히 전도하셔서 동생들은 가끔 교회에 나갔지만 맏이인 저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교회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교회에는 못 가도 예배가 있는 날에 은은하게 교회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는 저의 마음을 무척 편안하게 해주며 출처를 알 수 없는 기이한 기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처럼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를 동경만 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은혜와진리교회에 다니는 시누이의 전도로 교회에 갔습니다. 처음 교회의 예배에 참석했던 1987년도 그날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당회장 조 목사님의 얼굴을 처음 뵙는 그 순간부터 왜 그런지 모르게 가슴이 심하게 떨려서 설교하시는 내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이 쌓이면서 모세와, 예레미야와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도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꾸준히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저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고 열매를 맺으면서 그 말씀의 권능이 삶속에 다가온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밖에서 힘든 일을 겪은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엄마 품에 안겨 말을 제대로 못하고 그저 울음으로 아픈 마음을 표현하듯이, 교회에 가서 성전에 앉으면 이내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면 성령님의 신령한 위로가 임하며 어느새 예배가 끝이 났습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저의 발걸음이 가볍고 저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살게 되는 구원의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 알고 믿고 감사하게 된 후, 친정 가족의 구원을 위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충만하게 일었습니다. 강렬한 소원과 기대를 갖고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을 어머니는 더 이상 듣기 싫어하며 거부하셨고 무속적 기복신앙에 젖어서 생활하는 동기간들은 세속적인 복만을 바라며 기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족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전도와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오랫동안 당뇨를 앓으면서도 작고 구석진 자투리땅까지 곡식을 심고 가꾸는 등 억척같이 일하시고 알뜰하게 살림을 꾸리면서 자녀들 뒷바라지에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 덕분에 우리는 비교적 일찍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면 잘 해드려야 한다는 마음과 함께, 어머니가 하루속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전도해야 한다는 긴박한 마음이 저를 친정으로 달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서 농사를 지으시며 막내아들 가게까지 보살피셨습니다. 당뇨를 앓았지만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게 생활하셨는데 재작년부터 조금씩 건강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그러더니 당뇨합병증과 치매 초기 증세가 나타나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도 철원에 있는 어머니의 집을 오가며 간병과 전도에 힘썼습니다. 교회의 제가 속한 교구에 어머니의 이런 상태를 알리고 어머니가 구원받고 그리고 천국에서 안식과 영생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시어머님과 남편의 배려로 제가 생활하는 안양에서 어머니가 계신 철원까지 자주 오가며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던 중에 지난해 초부터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의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언제 전도를 거절하고 복음 듣기를 싫어했냐는 듯이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 천국에 꼭 가고 싶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의 어머니 모습은 제가 그때까지 보아온 어머니의 모습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전에 안양에 오셨을 때 몇 차례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셨고, 포일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결신기도를 하셨습니다. 천국에 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가 섬기는 포일성전에서 저희 모녀가 나란히 앉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뒤 저는 더 열심히 철원을 오가며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제가 친정에 없던 어느 날, 어머니가 넘어져 바닥에 세게 부딪치며 골반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셨는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 살아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함께하여 주시고 어머니를 도와주시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 사고 이후 어머니는 잘 걷지 못하여 자리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중에도 제가 큰 글씨로 써드린 결신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소리내어 읽고 암송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참 예쁘셨습니다. 마치 소중한 보물을 꺼내서 보듯이, 읽고 또 읽으셨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곧 죽을 정도로 몸이 많이 아프시고 가까운 곳에 치료받을 병원이 없어서 다들 죽는다고 했을 때 외할머니께서 동네 교회로 어머니를 데리고 가셨다고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꿈을 꾸셨는데, 흰 옷을 입고 밝은 빛을 발하며 산 위에서 내려오시는 분을 뵙고는 곧 병이 나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로 교회에 나가지 않았고 결혼하고는 아예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며 후회하셨습니다.

저는 그러한 어머니의 고백을 듣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이사야 49:15)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에베소서 1:4)라는 성경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의 어머니를 택정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저를 전도자로 삼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시는 마지막 어머니의 아름다운 얼굴을 볼 수 있게 섭리하여 주셨습니다.

임종하시기 전날에, 그 다음날이 수요일이어서 예배를 드린 후에 뵈러 갈려고 했는데 남편이 일찍 다녀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서둘렀습니다. 친정에 도착하자 다들 모여 있었고 어머니는 천국 갈 준비를 하며 저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남편과 제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한 다음 어머니의 귀에 대고 "엄마! 천국에 가세요. 예수님 품에 가서 계세요, 저희도 갈 거예요"라고 했더니 곧 평안한 얼굴로 마지막 숨을 내쉬고는 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교회장으로 치렀습니다. 막내동생이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열심히 교회학교에 다니는 어린 손주가 어찌나 크고 힘찬 목소리로 사도신경을 암송했던지, 일가친척 모두에게 성령님의 위로와 함께 주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하얀 눈이 짙게 내리던 날, 어머니의 장례를 위해 멀리 철원까지 오셔서 예배드리며 기도해 주신 교역자님과 포일성전 교우들에게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돌립니다. 어머니의 유언대로 저의 동기간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서 진정으로 복된 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의 든든한 기둥인 신실한 남편과 우리 가족을 위해 늘 기도하시는 시어머님, 고맙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아내와 며느리, 어머니가 되고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며 전도하면서 살기로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해 봅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 애쓰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간절한 소망을 꼭 이루게 되시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구역공과 제2권 (제10단원 : 성도의 바람직한 생활자세) (제45과) 찬송 생활

- **본문 :** 시편 113:1-3
- **요절 :**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시 113:2)
- **찬송 :** 28장(새찬송가 28장), 204장(새찬송가 288장)

지난 공과에서 우리는 감사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감사로 충만한 사람은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성경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골 3:16)라고 하심으로 감사 생활과 찬양 생활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인간과 만물을 통하여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찬양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가치를 지닌 것이며, 하나님만이 찬양의 대상이 되십니다(신 10:21).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입에 새노래를 두시고(시 40:3), 찬송의 옷을 입히시어(사 61:3), 성도들로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의 생활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성도는 찬송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가 지은 많은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회고하며 간증하였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구원받은 감격을 새 노래로 부르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리라고 노래했습니다(시 40:3). 과연 그의 시편들을 대하노라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가 막힐 고난 중에서 자주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적이 적지 않음을 알게 해 줍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그 능력과 사랑을 증거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찬송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받은 은혜를 온 가족이 함께 찬송으로 표현하여 이웃 사람들이 우리의 찬송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해야 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 할수록 더 풍성한 찬송 생활을 영위하게 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마 25:29)는 말씀은 성도들의 찬송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집요한 추적을 피하여 이리저리 황량한 들판을 도망다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의 처지를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시편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그는 피난 시절 동안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또 찬양하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형편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2. 찬송은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에 감격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다윗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시 95:1)고 노래하였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울적하고 의기소침해질 때라도 즐겁고 밝은 곡조의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밝아지고 용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요한 웨슬리가 젊은 시절 아메리카에 선교사로 갔다가 전도에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기선을 타고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배가 어느 날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에 웨슬리가 탄 배는 마치 나뭇잎처럼 이리저리 무섭게 흔들렸습니다. 그 배에 탄 승객들은 모두 두려움으로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두렵기는 웨슬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 한 무리의 모리비안 교도들이 한편에 모여 서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이 감돌고 두려움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웨슬리는 그들의 찬송 부르는 모습에 크게 감동을 받고 자기의 신앙이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무기력한 신앙인의 자리에서 탈피하여 찬송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활기찬 신앙인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시 147:1)고 찬송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선하고 아름다우며 마땅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 찬송은 하나님의 기적을 산출합니다.

바울은 동역자 실라와 함께 빌립보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던 중 마침 귀신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어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종의 정신이 온전해진 고로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자 그 여종의 주인들은 수입이 끊어질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관원에게 넘겼습니다. 관원들은 두 사도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즉석에서 이들의 옷을 찢고 심히 매질한 후에 어둡고 습기찬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비록 매를 맞아 고통스러웠으나 그 때문에 원망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밤중에 일어나 큰소리로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송을 들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활짝 열렸고, 죄수들에게 채워졌던 착고가 다 풀어졌으며, 이 기적으로 인해 그날 밤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역경을 만날 때라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결과가 주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난관을 해결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세속적인 음악이 난무하는 때일수록 성도들의 가정에는 찬송이 늘 울려 퍼지게 해야 합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찬송을 부르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찬송을 부르므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은혜와 진리교회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수원 : 수원시팔달구장다리로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 02-894-3731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 02-2632-3731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 031-906-3731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031-684-3731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관동동) T. 055-312-3731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41번길 30 T. 042-471-3736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 031-763-3720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울전 : 수원시 장안구 하률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 054-772-7867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